

보도시점 2026. 4. 21.(화) 06:00 배포 2026. 4.20.(월) 14:00
4. 21.(화) 석간

의료와 농업의 만남, 농촌형 돌봄 모델 만든다

- 의료복지사협이 사회적 농장, 농촌 주민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의료-돌봄’ 통합 제공
- 의료복지사협의 서비스 공동체 참여 확대로 농촌 의료 서비스 주체로서 역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의료복지사협’)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촌형 돌봄 모델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부족한 생활·돌봄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과 서비스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복지사협이 서비스 공동체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농장 등 농촌 지역 내 서비스 주체들과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양평군에서 추진되었다.

- * 사회적 농장 :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고용·교육 등을 지원하는 농장
- 서비스 공동체 : 식사·빨래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이 구성한 공동체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지역의 사회적 농장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허브 향낭 만들기 등 농업에 기반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였다. 양평의료복지사협은 활동 전후의 기초 진료를 토대로, 활동 전반의 의료 자문과 건강상태에 기반한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였다.

참여자들은 폐쇄적인 실내보다 개방적인 농장에서 스스로 보행을 시도하거나 허브를 수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참여자 간 소통 및 교류도 활발해졌다. 신체기능, 인지활성도 등 의료지표 또한 활동 전후로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 농장과 양평의료복지사협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에 소재한 의료복지사협들의 농촌 서비스 공동체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산청 의료복지사협에 이어 양평, 화성 의료복지사협도 올해부터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의 혈압·혈당 등 기초적인 건강데이터를 측정하여 플랫폼에 입력하면, 의료진은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방문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농업,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농촌형 돌봄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서비스 주체를 지속 발굴·육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농촌돌봄농장 개요.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개요. 끝.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최혜림 (044-201-1572)

붙임 1

농촌돌봄농장 개요[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

-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장 육성
- (사업기간) 5년(2018~)
- (지원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지원내용)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 개소당 최대 55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1년차 예비단계는 30백만원 지원
 - ('22) 83개소 → ('23) 92 → ('24) 97 → ('25) 97 → ('26) 101
- (활동내용)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 주요 사례 >

<p>■ 온더플 주식회사(경북 안동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고, 허브 주머니 등 사회적 농업 부산물의 판매 수익금을 장애인에게 환원- 안동시 내 5개의 특수학교 연계, 시설·기숙사에만 머물던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농장에서의 야외 돌봄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다문화아동 등 60명 대상 농업활동 80회 제공	
<p>■ 푸른팜 사회적협동조합(제주 서귀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가 어려운 최종증장애인에게 직무가 유연한 농업으로 일자리 제공· 포트 흙 담기, 식물심기 등 반복 작업 위주의 농업활동 70회 실시- 발달장애인이 주2회 2시간씩 흙 담기와 꽃 자르기 등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직무로 수행하면, 화훼 판매로 발생한 수익으로 급여 지급- 장애인이 지역 행사에서 직접 꽃을 판매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	
<p>■ 고성노인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경남 고성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등 교류활동이 없는 기초수급 어르신, 공공실버주택 거주 어르신을 텃밭까지 송영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통합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사별 등 정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 텃밭 활동의 부산물인 쌈채소, 배추 등으로 반찬·식사 지원· 텃밭 가꾸기를 통해 서로돌봄 등 농업활동 65회 제공(37명)	

붙임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개요[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

- 추진목적 :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사회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5년(2022~)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 * 조직형태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 활동내용 : 지역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안부확인 등 돌봄 방문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지역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 돌봄반장은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추진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69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서비스공동체 운영비 및 돌봄반장 활동비 등
 - 연차별 지원계획 : (1년차) 50백만원, (2~5년차) 69백만원
- 지원규모 : ('22) 22개소 → ('23) 30 → ('24) 33 → ('25) 40 → ('26) 66

< 주요 사례 >

■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전북 진안군)

-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활동하는 주민공동체('22.7월 설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농협, 주민자치회와 협력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동밥상('25년 총 1,950명 지원), 방충망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100명 지원), 서예교실 등 여가서비스 제공



■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경남 산청군)

- 경남 산청군 11개 읍면에 활동하는 의료 전문 서비스 공동체('21.11월 설립)
- 건강리더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건강 상태 문진, 건강정보 전달 등 일상돌봄을 실천하고, 이동 불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의 진료 제공
- 주민 건강리더 활동('25년 총 2,100명 지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주치의 사업(300명 지원), 병원이동 동행 등 의료서비스 제공

